

‘사농공상’의 잔재마저도 없애 멋진 ‘창조’가 빛을 보게 하자!



김정훈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지금 우리는 ‘창조’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창조는 기존과는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창조를 시도하는 사람은 기존 세력의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 장벽은 더욱 높아져 가고, 이 장벽이 높으면 창조는 어려워지면서 국운도 기울게 된다.

전기 분야는 그 동안 애쓴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회사 주장으로는 송배전 손실률이 세계 1위이며, 전기요금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정전 시간도 세계 2위로 적고, 전기품질이 우수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전력망’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없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불가피성, 수요관리자원 이용, 전기자동차 도입, 전기품질 문제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가 주목받고 있고, 그 중 하나인

ESS(Energy Storage System)라는 신기술을 선택하게 된 것이 요즈음 추세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이득을 준다면 정부는 이를 강력히 진행시켜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산업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가 주도하여 수요를 창출시켜 준 다음 민간 시장으로 넘겨준다. 따라서 ESS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또는 공기업에서 주도하여 시장을 만드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ESS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ESS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면 자칫 공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행정관리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가 ESS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합심하여 ESS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나 규칙이 제·개정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스피드가 생명이다. 하지만 빠른 일처리를 위해 산·학·연과 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문제점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신뢰도 기구를 만들어 국가적 관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등장할 때 이를 잘 이해 못하는 행정관리 또는 정치인들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

즉,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화된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사농공상’의 잔재를 이제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창조’가 빛을 보도록 하여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